

“농산물도매시장 범인 추가 안된다”

순천시 결정에 기존 범인·중도매인 강력 반발

“장소 좁고 영업권 문제 범인간 분쟁 소지도”

순천시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범인 1개를 추가 지정하고 새 범인을 도매시장내 경매장에 입주 시키려하자 기존의 범인과 중도매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협의회는 최근 혼용면도로 노후화된 시장의 입구를 확장해 주차장을 넓힐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곳은 범인 1개를 추가 지정하는 대신 기존 범인과 중도매인 2개를 더 넣어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농산물도매시장 범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도매시장을 새롭게 운영할 법인을 지난달 25일 결정했다.

시는 도매시장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현 2개의 입주법인(순천원예농협, 낭도청과)을 1개 늘려 3개의 범인으로 지정했다. 2001년 4월 개장 이래 9년 만에 이뤄진 첫 추가 지정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순천시가 공정회나 설명회, 논의 등 여론수렴 없이 범인을 추가 지정하고 새 범인을 입주 시키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고 영업권 문제로 범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도 시설증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 시설을 분할해서 3개의 범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라는 일방통행식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범인과 중도매인들은 “건축 당시 2개의 범인이 사용하도록 도매 시장이 설계됐다”며 “이미 시설된 범인사무실, 판매장, 임уществ, 출하 물량의 반입·반출, 동선 등은 3개 범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물 출하량이 급증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우수, 설날에는 현재의 공판장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와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3개 범인을 추가 지정하고 새 범인을 입주 시키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의 경매장 분할 사용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로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상 주차장 일부를 용도 변경해서 이곳에 새로운 경매장을 신축한 후 새 범인을 입주시켜야한다”며 “관찰되지 않을 시 중도매인 허가권을 모두 반납하고 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현과 일 경매장은 3개 범인이 나눠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증축 등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광양 양산마을 약수터 관광 명소로 탈바꿈

음수대·주차장·휴게시설 조성

수백년 전통이 있는 광양시 옥룡면 양산마을 약수터 새단장됐다.(시진)

광양시는 최근 양산마을 약수터 명소화사업을 통해 환경적인 이미지가 닦힌 장소로 대형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두꺼비상 음수대(3개), 친환경 주차장(24면), 휴게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했다.

그동안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는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오염에 노출돼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옥룡면 양산마을은 당나라 맹명객인 ‘양수수’라는 사람이 옥녀탕금과 배혈이 있는 곳이라 했던 유래가 깊은 곳이다.

여인상을 한 산세 아래로 흐르는 샘물은 맑고 변함 없이 물맛이 좋아 대대로 원님 전용식수(사또약수)로 이용됐다고 한다.

시는 이번 양산마을 약수터 명소화사업을 계기로 약수터 이용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주차공



간 및 편안한 휴식처 제공은 물론 산체류 등 지역 특산품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식물생태숲, 옥룡사지, 도선국사 테마마을 등과 연계됨으로써 관광자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서회원 시 공원녹지와 담당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깨끗한 양질의 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영광 ‘푸드마켓’ 7월 문열어

득가점 345가구가 등록돼 그동안 943건 6천20여개의 다양한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급 받았으며 기부식품이 증가할수록 이용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기부식품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지속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해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공급대상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후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푸드마켓(061-283-1477)으로 연락해보면 되며 10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여수에도 거북선 유람선 뜯다

44억 들여 건조… 6월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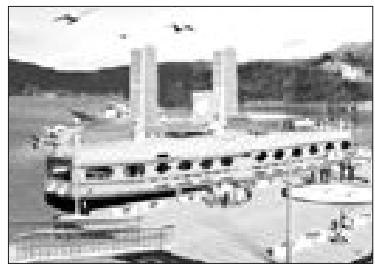
해남에 이어 여수에서도 거북선형 유람선(조감도)이 오는 6월 첫 선을 보인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조선시대 거북선을 제작한 선소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와 유적 등에 대한 관광지원화를 위해 44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부터 거북선 형태의 유람선 건조에 착수했다.

유람선은 길이 49.5m, 너비 12m, 42t 크기로 한꺼번에 306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용마리에 포구(庖口)가 있고 갑판에 지붕을 쏙은 전형적인 거북선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고성화한 조선소에서 제작중으로 오는 6월 초순께 완공, 운항될 예정이다.

유람선 내부는 일반 선실 외에 여



수의 역사와 관광, 유적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관, 조선시대 수군복장을 착용해보는 복식체험관, 사진촬영 공간인 포토존, 토산품 판매コーナ 등을 갖추게 된다.

유람선 운항 코스는 여수일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돌산대교와 소호 요트장 등 애경이 아름다운 곳은 야간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봄의 전령사’ 흥매화 활짝

최근 순천시 낙안면 금둔사에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흥매화가 활짝 핀 가운데 신도들이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금둔사 토종 흥매는 전남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 소식을 알린다.

(전남도청 제공)

순천농협 조합장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결의 다져

최근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위법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농협 조합장 후보자들이 오는 9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했다.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강성재 현 조합장과 이광하 전 상임이사는 2일 농협 순천시지부에서 순천경찰이 참관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다지는 서명식을 가졌다.

양 후보는 지역사회와 농협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하며, 금품과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를 척결하고, 조합원의 선택을 존중해 선거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화합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봄의 전령사’ 흥매화 활짝

최근 순천시 낙안면 금둔사에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흥매화가 활짝 핀 가운데 신도들이 산신각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금둔사 토종 흥매는 전남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 소식을 알린다.

(전남도청 제공)

태양광 발전소 부지 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 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영희
TEL : 062-364-8700
H.P : 010-4608-3700

예탁금 계약금

근로시간

로제타운/한국타운

제작금/제작비

제작금/